

생태문명을 꿈꾸다¹⁾

제레미 렌트 Jeremy Lent

생태문명 An Ecological Civilization

생태문명은 자연 생태계에서 살아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지구에서 수십 억 년 동안 생명체는 탄력적으로 진화하면서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구석에 풍부하고 놀라운 다양성을 퍼뜨릴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약탈이 없다면 자연 생태계는 수백만 년 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살아있는 시스템은 경쟁과 협력이 특징이다. 그러나 현재의 풍요로운 상태에 생명을 불어넣은 주요한 진화적 전환은 모두 협력이 극적으로 증가한 결과였다. 이러한 각각의 진화 단계와 모든 생태계의 효과적인 기능의 핵심은 공생이다. 공생은 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가 서로의 능력과 필요를 반영하여 상호 주고받는 과정이다. 공생에는 제로섬 게임이 없으며, 각 당사자의 기여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전체를 만든다.

생태계가 거의 무한하게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생의 주요한 결과이다. 태양의 에너지는 생태계의 모든 대상들에게 원활하게 흐른다. 한 유기체의 낭비는 다른 유기체의 생존이 된다. 자원을 채취하고 쓰레기를 축적하여 부를 축적한 현재의 문명과 달리 자연은 낭비되는 것이 없는 순환경제를 이루고 있다.

공생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유기체의 복잡한 상호 연결은 자연의 또 다른 기본 원리인 조화로 이어진다. 조화는 부드러운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시스템 내의 다른 요소가 자체적인 필요를 표현하여 시스템 전체가 풍부해질 때 발생한다. 시스템의 다양한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조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쟁과 협력, 시스템의 효율성과 탄력성, 성장·성숙 및 쇠퇴 사이의 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연 생태계에서 우리 문명이 현재 겪고 있는 기하급수적 성장 유형은 어떤 변수가 이미 균형을 벗어난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종류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그 인구의 치명적인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미세한 세포 내 구조에서 전체 지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프랙탈 구조를 가진다. 일관된 자기조직적 개체가 더 큰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다. 세포는 생태계의 일부인 개체군의 일부이고, 개체군은 유기체의 일부이다. 모든 경우에 시스템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각 부분의 번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시스템은 다른 모든 시스템의 활력에 상호의존적이다. 이 보편적인 교훈은 생태문명의 궁극적인 목표로 이어지게 된다. 바로, 모든 인간이 번영하는 동시에 살아있는 지구의 일부로 번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자연계에 내재된 공생은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노력과 기술이 공평하게 보상되도록 보장하는 공정성과 정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인간의 용어로 번역될 수 있다. 시스템 전체의 번영이 모든 구성 부분의 건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생태문명은 개인의 존

1) *The New Possible: Visions of Our World Beyond Crisis*(edit. Evan Steiner, Philip Clayton, Wipf and Stock Publishers, 2021)에 실린 서문입니다.

업성을 증진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유능한 의료 및 양질의 교육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한다.

생태문명은 다양성을 중시하며, 민족, 성별 또는 기타 특징에 의해 스스로 정의되는 다양한 그룹이 자신들의 고유한 재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을 때 건강한 문명을 이룰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생태문명은 시스템의 완전한 잠재력은 각 구성 요소들이 완전히 통합된 공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 때 말하는 구성 요소의 통합은 다름을 인정하는 연합으로 구성원의 번영이 전체의 안녕을 보장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균형의 원칙은 그것이 자연계에서 가지는 중요성만큼 생태문명에도 중요하다. 경쟁은 협력으로 균형을 이룬다. 소득과 부의 격차는 훨씬 더 좁은 범위에 머물고,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경제(life-affirming economy)는 동물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의 강력한 순환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공동체 전체에 부의 광범위한 순환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장은 자연적인 생명 주기의 일부로서 건강한 한계에 도달하면 성숙으로 느려지고, 소비보다는 복지를 위해 설계된 안정적인 상태의 자급자족 경제로 이어진다.

무엇보다도 생태문명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인간 사회와 자연 세계 사이의 공생을 형성한다. 인간의 활동은 살아있는 지구에 대한 해악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 미래의 건강까지 적극적으로 재생하고 유지하기 위해 조직될 것이다.

생태문명의 실제 An Ecological Civilization in Practice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GDP를 얼마나 증가시켰는가를 바탕으로 성공을 평가 받는다. 그러나 GDP는 삶의 질에 관계없이 사회가 자연과 인간 활동을 화폐 경제로 전환하는 비율만을 측정할 뿐이다. 좋은 나쁜든 어떤 종류의 경제 활동을 유발하기만 한다면 GDP에 추가된다. 부탄에서는 GDP의 영구적인 성장에 기반한 경제를 대신하여 ‘국민총행복’ 지수와 같은 대안적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영성, 건강, 생물다양성 등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한다.

19세기 이래로 대부분의 경제 사상가들은 시장과 정부만을 경제 활동의 두 영역으로 보았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큰 정치적 격차는 이 두 극 중 어느 하나(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사회민주주의와 함께)를 강조하는 데서 발생하였다. 생태문명은 정부 지출과 시장을 통합하지만, 진보적인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가 제시한 바와 같이 오래된 틀에 가계와 공유지라는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을 추가한다.

특히 커먼즈는 경제 활동의 중심 부분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커먼즈는 소작농이 가축을 방목하거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접근한 공유 토지를 의미했다. 그러나 커먼즈는 더 넓은 맥락에서 공기, 물, 햇빛, 심지어 인간의 창조물(언어, 문화적 전통, 과학적 지식 등)과 같이 국가나 사적 소유에 의해 전유되지 않은 생계와 복지의 모든 원천을 의미한다. 커먼즈는 가사 노동과 마찬가지로 고전적인 경제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 논의에서 사실상 무시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커먼즈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것은 생태문명에서 다시 한번 인간 복지의 주요 원천으로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수 세대에 걸친 수고와 독창성을 통해 우리에게 물려준 누적된 공동 자원은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 공동의 막대한 부(富)의 보고로, 이에 비하면 개인이 더한 가치

는 바다에 떨어뜨리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이에 기반하는 생태문명은 기업가 활동에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지만, 성취와 상관없이 누구나 수십억 달러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권리는 심각하게 축소할 것이다.

반면 생태문명은 모든 인간이 이 방대한 공동의 부를 공유할 수 있는 도덕적 생득권을 인정한다. 전환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알려진 현금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견해는 공짜 돈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일을 피하고, 중독성 행동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모든 실험을 통해 사실은 그 반대임이 밝혀졌다. 이 프로그램 통해 범죄, 아동사망률, 영양실조, 무단결석, 10대 임신 및 알코올 소비는 감소하고 건강, 양성평등, 학업성취 및 기업활동은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실천적 이유로 인해 보편적 기본소득은 생태문명의 설계에 필수적이다.

현재 글로벌 사회의 거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은 근본적으로 재조직될 것이며, 그들이 봉사한다고 알려진 지역사회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결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명시적 목적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람, 지구, 이익을 '3대 요소'로 보며, 이미 인증된 B-Corp나 베네피트 기업benefit corporation의 형태로 존재한다. 현재는 자발적인 소수의 기업만이 이러한 현장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강제적이라면 기업의 본질적인 성격을 즉시 변화시킬 것이다.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최적화되도록 하려면 엄격한 집행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회사의 운영 범위에 포함되는 공동체와 생태계의 대표로 구성된 패널들의 정기적인 결정을 기반으로 하며, 기업의 기존 강령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협 요소도 포함될 것이다.

균질화된 단일작물을 방대하게 생산하는 산업적 농업 대신, 재생 농업의 원칙에 따라 식량이 전 세계적으로 재배될 것이다. 이는 작물의 더 높은 생물다양성, 물과 탄소 효율 개선, 합성 비료의 사실상 퇴출을 의미한다. 제조업은 처음부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사용하여 순환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선시할 것이다. 지역 소유 협동조합이 기본 조직구조가 될 것이며, 기술혁신은 여전히 권장되지만 억만장자를 만드는 것보다 살아있는 시스템의 활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것이다.

도시는 생태학적 원칙에 따라 재설계될 것이다. 이용 가능한 모든 토지에 공공 정원이 생기고, 도보 20분 이내에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필수 서비스가 마련될 것이며, 도심에서는 자동차가 금지될 것이다. 지역 사회는 사회의 기본 구성요소가 될 것이고, 대면 상호작용은 다시 인간 번영의 중심한 부분이 될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취업 시장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는 일생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지혜, 분별력 및 정서적 성숙도를 배양하는 것으로 변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삶은 세계적 범위로 활용되는 인터넷 덕분에 풍요로워질 것이다. 페이스북과 같이 이미 규모를 달성한 온라인 네트워크는 커먼즈로 넘겨져 광고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를 조작하는 대신 인류가 행성 의식을 더욱 발전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문자 그대로 '세계의 시민이 됨'을 의미하는 그리스의 고대 개념-은 글로벌 정체성을 정의하는 특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공통된 운명을 가진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묶는 깊은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면서 문화 간의 다양성을 축하할 것이다.

거버넌스는 다중심주의polycentric 모델로 전환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 차원, 지역

차원, 세계 차원의 결정이 각각의 수준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려질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 결정은 실행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양되지만, 더 강력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기후 비상사태에 대처하고 여섯 번째 멸종을 중지하는 것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자연권 선언은 자연계를 인류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할 것이며, 인간성은 생태계와 고기능 포유동물에게 귀속될 것이고, 생태학적 범죄(생태계 파괴)는 전 지구적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기소될 것이다.

위대한 전환을 향하여 Towards the Great Transition

이 비전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착각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먼 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구적인 조직들은 이미 생명을 긍정하는 문명의 씨앗을 심고 있다.

선견지명이 있는 미국의 기후정의동맹Climate Justice Alliance은 추출적 경제에서 생태적·사회적 복지와 심층 민주주의를 통합하는 재생경제로의 정당한 전환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는 부엔 비비르buen vivir와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의 전통적인 생태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Mondragon과 같이 번성한 대규모 협동조합이 주주 기반 수익 모델을 활용하지 않고도 기업이 인간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새로운 생태적 세계관이 문화 및 종교 기관 전반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지식과 생활 방식을 유지해 온 토착 전통과 공통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생태문명의 핵심 원칙은 이미 2000년 헤이그에서 시작되었고 많은 정부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2,000개 이상의 조직에서 승인한 '지구헌장Earth Charter'에 명시되어 있다. 중국의 주요 사상가들은 신유교를 지지하며 인류와 자연을 재통합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생태학적 접근을 요구한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생명의 깊은 상호연결성을 보여주며, 개인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패러다임의 거부를 촉구하는 생태철학의 걸작인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발표함으로써 가톨릭 기득권을 뒤흔들었다.

세속적 측면에서 경제학자, 과학자, 정책 입안자는 현재 경제 모델의 도덕적 실패를 인지하고 대안적 틀을 개발하기 위해 자원을 모으고 있다. Wellbeing Economy Alliance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인간과 생태적 웰빙을 증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체인지메이커들의 국제적 협력이다. 마찬가지로 Global Commons Alliance는 지구의 자연 시스템을 재생하기 위한 국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Next System Project와 Global Citizens Initiative와 같은 조직은 생태문명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원에 대한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있으며, P2P 재단은 사회 변화를 위한 커먼즈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환도시'가 국제 운동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풀뿌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아마도 삶을 긍정하는 변화를 향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기후비상 사태에 주의를 끌고자 2018년 8월 학교를 결석하고 스웨덴 의회에 갔을 때, 그녀는 며칠 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15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부모 세대를 깨우기 위한 세계적인 시위에 그녀와 합류하였다. 멸종반란 시위대가 2019년 4월 런던 중심부를 폐쇄하여 세계의 심각한 곤경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지 한 달 후, 영국 의회는 기후비상 사태를 발표했다. 현재는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1,500개 이상의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에서 유사한 선언

을 했다. 한편 Earth Protectors의 캠페인도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에코사이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 필요한 변화의 광대함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끔찍해 보인다. 그러나 누구도 그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세계 시스템이 내부 결함으로 인해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시스템을 긴밀하게 연결해 주던 가닥들도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재앙이 다가올수록 더 큰 기후 관련 재난이 발생한다. 인종 및 경제적 불의에 대한 분노가 더욱 심각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참을 수 없게 되면서 인류의 집단 의식에 기대왔던 오래된 이야기는 점점 더 힘을 잃는다. 청년들의 물결은 새로운 세계관을 찾고 있다. 현재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다. 산업혁명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겪고 있는 변화에 대한 이름이 없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변화에 대한 이름이 생기기 1세기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이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